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주일말씀>

예수님의 영 부활과 영 재림

본 문 :

<누가복음 24장 3-7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대”

<요한복음 5장 24-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독교의 최대 축일이자 명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근본을 확실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이기에
예전에 섭리사에 온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잘 알지만,
이제 온 사람들은 잘 모르니
그들을 위해 자세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깊이 말해 주고 다음부터는 핵만 말해 줄 것이니,
오늘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45년간 가르친 것의 ‘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동안 배운 말씀들의 핵입니다.
‘예수님의 영 부활과 영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 전체를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행한 것과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행한 것을 읽어 봐야 합니다.

◇ 예수님의 ‘영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릅니다.
‘영 부활’ 했으면 이 시대 예수님 영이 오시니
육신이 신령하여 예수님 영을 보고 맞아야 하는데,
‘육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니,
예수님을 못 맞게 된다고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신약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영이 부활했다.
 영이 승천했다.
 확실히 가르쳐라.
 영 부활한 것을 내 보낸 자를 통해 알고 믿는 자만
 나 예수를 맞고 신부 되어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한다.” 하셨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시대 예수님의 영이 와도 제대로 못 맞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확실히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 ◇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속 시원히 전하며
 영이 부활한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 더욱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역사이니,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주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워서
 모르는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영 부활 -

- ◎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한 것이 육인지, 영인지 확실하게 안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이 죽은 것을 알아서, 육 부활이 아님을 그리 강조를 안 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못 봤기에 ‘육 부활’ 이라 하지만 당세 때는 예수님 육이 죽은 것을 결국 다 알았습니다.
 고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뛰고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 ◇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항상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나타나셨습니다.
 순간순간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순간 나타나서 보이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자주자주 못 만났습니다.
 또, 음식을 잡수셔도 순간 잡수시고 떠나셨습니다.
 꿈에, 혹은 환상으로 영들을 보면
 영도 음식을 먹습니다. 육같이 합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눈만 떠도 예수님을 봤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만 예수님이 순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만 들리고 몸은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강의해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면
 그제야 예수님이 순간만 보였습니다.

◇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청년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떡을 떼어 주니 ‘예수님이다.’ 하고 깨닫기만 하였습니다.

(눅 24:31)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던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율법에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눅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를 두고 선생이 예수님께

‘영광으로 들어간다.’ 는 말이 무슨 말이나고 물으니,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었으면, 영광 받으려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한 말이다.”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의 부활을 말했어도

육적인 자들은 육으로 인식합니다.

그 당세 때는 다 영의 부활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육적인 자는 지금도 육적으로만 성경을 읽니다.

고로, 영을 사망으로 가게 합니다.

영과 육은 하늘과 땅같이 다릅니다.

‘영’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으로
150억 광년도 넘는 거리를 순간에 갑니다.

‘육’은 100년을 가도 육의 몸만으로는
지구에서 공중으로 10m도 못 올라갑니다.

◇ 육체와 영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체는 육체와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형체도 다릅니다.

영체는 공중에서 다니고, 땅에도 다니고, 문이 닫혀도 다니고,
음식을 안 먹어도 1년씩 살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전디고,
깊이 100m 물속에 들어가서 한 달씩 있어도 안 죽고 나옵니다.

영은 얼음 속에 들어가서 1년씩 있어도 안 얼어 죽습니다.

영은 육이 절대 못 하는 것도 합니다.

영은 육보다 키가 크고, 무게는 가볍습니다.

영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은 능력이 탁월해 영의 몸을 육같이 보이기도 하고,

완성형 영은 육같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각종 능력을 가지고

육체 가진 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실도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도 갈 수 있고,

자기 육체의 원수도 해롭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영계의 영들과 말도 하고,

영의 세계를 자기 주관권은 다 다닙니다.

영은 사탄과도 싸우고, 천사들과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성령과 대화도 합니다.

영은 절벽을 다니다 떨어지면 날아 버리고,

영은 지옥 불에 가도 안 죽고 삽니다.

이 같은 일들을 육은 하나도 못 합니다.

육은 영과 아예 비교를 못 합니다.

육은 영의 세계, 천국에 가서 못 삽니다. 사용도 못 합니다.

그러나 영은

육의 세계의 물건이나 각종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못 합니다.

육은 합니다.

(영상 1)

◇ 영이라도 다 같은 영은 아닙니다.

‘영의 급’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영형체급(일반 영, 보통 영)

(2) 영인체급

(3) 영완성체급(생명체 영)

- <영형체급> 영은 구름 같고, 뼈와 살이 없고 안 만져집니다.

영의 형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 <영인체급> 영은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입니다.

- <영완성체급> 영은

부활되고 완성된 영으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세상에 줄 것을 다 주시고

‘완성된 영, 생명체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사람 육체같이 잡힙니다.

- ◇ <시대적>으로 ‘영의 급’을 구분해 본다면,
 영형체급, 영인체급, 영완성체급은 각각
 구약역사, 신약역사, 성약역사에서 형성된 영들 같습니다.
 비유컨대,
 구약 영은 찬물 같고, 신약 영은 살얼음 같고,
 성약 영은 얼음덩이 같습니다.

완전한 생명체 급의 영으로 부활되면

이 영은 사람 육체같이 만져집니다.

이러한 완전체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신부로서 육이 행하면

영이 완전한 영으로, 사랑체로 형성되어 황금 천국에 갑니다.

(영상 1 끝)

- ◇ 무지한 자들은 영에 대해 모르고 육만 압니다.
 예수님이 영에 대해 말하면 미련한 자는 육으로 아니,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아, 어찌 내가 말함을 육으로 듣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그만 말하자.” 하고 끊어 버리셨습니다.
 육적 사랑의 사고, 이념, 인식을 가진 자는
 영의 사랑 이야기를 하여도 육의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육의 몸을 통하여 영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 예수님이 육을 위해서만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을 가르쳐 주고,

영원한 영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근본인 ‘사람 영체’에 대해 가르쳐서
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이 메시아를 믿으면
육도 새롭게 부활되어 선을 행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도 죽은 사망권에 살던 영이 부활되어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시대에 따라 구원받고 살다가 육은 죽고
영만 시대에 따라 천국, 혹은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 ◇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이 자기 영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혼은 꿈에 수시로 보지만, 영은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 이야기를 하면
‘육’으로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에 대해 더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영체 보기가 어렵듯이,
자기 영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로, 영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 ◇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 영이 살았는데
모두 다 육체가 살았다는 식의 성구로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36-43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
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
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
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
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였습니다.

성경 번역상, 육이 산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말로 표현을 하고, 또 번역을 달리해서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육같이 생각합니다.

고로 선생은 영계에 가서 예수님께 성경의 모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 해석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예수님의 육이 부활하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 지금부터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2)

- ① 예수님 영이 살지 않고 육이 살았다면,
왜 40일 동안 제대로 집회 한 번을 안 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겠습니까.
40일간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이니
모두 다 모아 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영상 2 끝)

②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으면,
 왜 계속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겠습니까.
 육이 살았다면
 메시아의 목적이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일이니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았기에 육으로는 끝났으니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③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다면,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입니까.
 육체는 아무리 변화가 돼도 육체입니다.
 10m도 공중에 못 올라갑니다.
 육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히 9:27),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④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육신이 부활했다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죽었지만, 나 다시 살았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살아서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사망에 죽지 않고 영광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 원수의 영들이 있는 곳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아들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육이 살았다면, 모두 바로 알았습니다.

- 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육신이 살았다면
왜 제자들이 한눈에 못 알아봤겠습니까.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요 20:11-15),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도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했으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눅 24:13-16),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요 21:1-4).

예수님은 40일 동안 ‘영의 몸’ 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도

예수님 영체가 나타나서 회심시키고 전도하셨습니다(행 9:1-18).

-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다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선생에게도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밤에 길을 다닐 때 등
 일생 동안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는데, 모두 영체였습니다.
 육체를 본 일이 없고,
 몇 시간씩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역시 영체였습니다.
 굴에서 기도할 때 오셔서, 만져 보기도 하였습니다.
 육체같이 만져지고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이고,
 대화도 오래 하였습니다.

그 영을 보면 완벽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늙지 않고 빛나셨습니다.
 지금 보면, 나는 나이 먹어 늙었는데
 예수님은 영이라 60년 전에 본 것보다 더욱 빛이 나셨습니다.

- ⑥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다음 성구에 대해 확실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눅 24:25-26)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
 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24장 13절부터 보면,
 두 청년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으나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상 3)

두 청년이 생각한 것을 말하기를
 “예수는 선지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다. 안타깝다.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 무덤에 갔을 때 천사에게서 듣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한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나.”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으니 그 영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육이 죽었으니

이제 바로 영의 나라에 가야 한다.’ 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이 부활된 근거입니다!

(영상 3 끝)

●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39절을 보고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모두 주장합니다.

(눅 24:36-39)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그 방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처음에 제자들이 모두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마치 육신이 산 것같이 말씀하시기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를 만져 보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다.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구를 두고 사람들은
 ‘만져 보라. 나 예수의 육이지 않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는
 의미의 말인 줄 압니다.

(영상 4)

선생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영으로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땅에 있을 때도 모두 영으로 활동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미 믿고 있고,
 섭리사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으로 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육같이 있다.’
 하셨기에, 이 말을 나는 이해하지만,
 모든 자들을 위해 자세히 해석해 주세요.”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서

“영들도 보면,
 아직 온전하게 부활되지 않은 영은 일반 영으로,
 ‘영형체급’ 이다. 살과 뼈가 없는 무(無)형체의 영이다.
 그때 제자들이 나를 안개나 구름같이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영으로 보았다.

그런 영은 그 형체가 귀신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다.
 구원받았어도 온전히 부활되지 않은 자들의 영은 일반 영이다.
 일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육의 사람 같지 않다.

나 예수의 영은 부활한 영으로,
 살과 뼈가 있는 사람같이 <완성된 영>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최고로 다 이룬 자로서,
 영이 하나님같이 산 영으로 부활되었다.
 네가 산에서 내 영을 깨달았을 때도 사람 같지 않았나.
 만져 보니 만져지지 않았나.

<영형체급 영>과
 완성되어 만져지는 <영완성체급, 생명체 영>은 다르다.
 제자들은 내 영이 부활의 영으로서
 완성된 영의 형상인 것을 몰랐다.

<일반 영>은 하나의 구름 형상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 형상 같고, 무지개 형상 같다.
 그런 영이 온전하게 부활되면 영의 형체가 완전히 이뤄진다.

나 예수의 영은 완성된 <생명체 영>이다.
 구원 못 받은 자의 영, 땅에 속한 영들은 모두
 부활되지 않아서 그 형체가 그림자 같다. 구름 같다.
 구원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영은 형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살과 뼈를 가진 육의 형체같이 영의 몸이 된다.
 나는 그런 영으로 영이 부활됐다.
 고로 나를 만져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부활하고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이 부활은 나 예수가 먼저 했느니라.
 사랑도 온전히, 진리도 온전히 행하고
 아들로써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완성된 영, 빛나는 발광체 영이 되었다.
 영광의 영, 하나님같이 산 영이 되었다.
 처음에 제자들은 나를 때도 살도 없는 일반 영으로 보고
 무서워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영상 4 끝)

- 우리도 휴거되고 온전해야 완성의 영, 생명체 급의 영이 됩니다.
 섭리사를 나가면 귀신의 영이 됩니다.
 이는 형체를 안 갖춘 영으로
 구름 뭉쳐진 것과 같고, 물과 같습니다.
 생명체 영은 얼음덩이 같습니다. 완성돼서입니다.

 영의 단계로 들어가면, 영이 만져집니다.
 예수님 영도 완성을 이룬 생명체 영이라
 만지면 만져지고, 껴안으면 안아집니다.

 내가 기도굴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골격도 있었고,
 만졌을 때 살도 만져졌습니다.
 예수님께 붓을 받을 때도 오랫동안 확실히 그 모습을 보았는데,
 완전한 형체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 봐라.” 하셨을 때도
 제자 도마가 만지니,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완성체 영이라 못 자국만 남아 있는 것이고,

만일 육이라면 그리 빨리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이 죽었으니 영으로만 존재하다가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 2000년간 영만 보이셨고,
그의 육이 나타난 것을 본 자는 없습니다.
이로써 영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⑦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으면

재림 때도 육으로 와야 됩니다.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고도 육이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 되면 1초도 안 넘기고 역사를 하십니다.
고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때 되면 오셔서 행하시는데,
길고 긴 신약역사 2000년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 육은 안 오셨습니다.

기성 신앙인들은 예수님 육신이 부활했으니
육이 2000년도에 온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 오니,

다시 종말의 때를 2012년도, 혹은 2023년도라 하며
그때 온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그때에도 예수님의 죽은 그 몸은 안 오셨습니다.

●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니 항상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자기가 못 하면 합당한 자를 쓰고 합니다.

예수님 영만 지구 세상에 다시 오시고,

맞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을 보이며
 영이 부활됐다고 확실히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이 ‘영 부활’ 했다고 하면 그렇게도 이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선생에게 말씀하시길,
 “육은 2000년이 돼도 안 온다.
 영이 와서 시대 사명자를 쓰고 천 년 역사를 한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으니, 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이 부활했는데 육이 부활했다고 하면
내 영이 재림함을 안 믿으니 구원에 있어 문제가 크고,
기다린 새 시대를 맞지를 못하여
신약 때 나 예수를 메시아로 못 맞은 율법주의자들같이 된다.”
 하셨습니다.

(영상 5)

⑧ 예수님이 성만찬 때 말씀하신 성구를 보겠습니다.

(마 26:26-29)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며

“이것이 세상에서 육으로는 마지막이다.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이제 다시는 나 예수와 못 마신다.

하늘나라에서 새것으로 함께 마시게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육은 다시 못 살고 끝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시는 것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아예 죽고 끝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만 살아 하늘에 간다고 하신 말입니다.

제자들도 육신이 죽고 영이 하늘나라에 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5 끝)

이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선생에게도 성경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며,
 “나의 부활이 영의 부활임을 다 확실히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 줘라.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으면 평생 모르고, 수천 년이 가도 모른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하셨습니다.

자기 지체도 어떻게 생겼는지
 의학 공부를 안 하면 평생 모릅니다.
 또, 무엇이 아름답고 어떤 마음이 훌륭한지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 책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천 번 읽어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모른다.
 한 자 한 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읽고
 전체를 모두 보면서
 영을 두고 말하였는지, 육을 두고 말하였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식을 달리 가지고 있으면 모른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인봉된 말씀은 못 뜯는다.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풀게 하여 그 시대 뜻을 펴신다.
 고로,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인식을 바로 하여라.” 하셨습니다.

- 이 시대 역사를 펴면서
 성자에 대해, 성령에 대해 다 가르쳐 주었고,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일, 1290일, 1335일’의 인봉을 떼서 다 이루며 왔고,

부활과 휴거 등 각종 비밀로 인봉된 말씀을 다 떼서
행해 왔습니다.

- 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다.”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벧전 3:18-19)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영은 사망의 사탄에게 묶여 있지 않고
생명권으로 나오시사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2400년 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한 자들로,
육은 홍수로 심판받아 죽고 그 영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에 죽어 있는 영들이었습니다.
영계 옥에서 그 영들이
2400년 동안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영들은 살아났습니다.

● 육과 영이 사망에 처한 자가

생명의 말씀을 주로 인해 듣든지,
혹은 생명권에 있는 자가 전해 주어 듣고 믿으면,
그 육도, 영도 사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입니다.

선생도 시대 고난을 받으면서
땅의 옥에서 시대 복음을 전해 주어
60년, 혹은 70년 동안 사망권에 살던 육과 영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영도 육도 사망에 있지 않고 살았기에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 부활로 봐야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고,
예수님이 땅에서 쓰는 자와 일체 되어 ‘휴거’가 됩니다.

휴거란, 거듭남입니다. 새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새로운 삶이
천 년 동안 진행됩니다.
거기에 속해 진실로 사는 자들을 ‘휴거됐다.’ 합니다.

◇ 사도 바울도 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으로 부활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냐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영이 다시 살아나사

바울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이셨음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영이 사망에 묻히지 않고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에게 붙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데,

곧 영이 육과 함께 홀연히 변화된다.” 하였습니다.

- ◇ 사도 바울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얹매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사
자기의 곤고함도 해결해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롬 7:4-6).

- ◇ 예수님의 ‘영 부활’ 이 중요한 이유는,
영 부활을 알아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기 때문입니다.
육신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의 육을 계속 기다립니다.
사탄은 영 재림을 못 맞게 방해하려고 영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그래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변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는 영원합니다.

섭리사를 따라오다 배신하고 불신하고 나간 자는
그동안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은혜에만 빠진 것입니다.
은혜는 살 같아서, 은혜의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진리는 뼈 같아서,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 중고등부, 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발 확실하게 알라고 하셨으니,
다음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요.
대학부도 잘 듣기 바랍니다.

- 영의 재림 -

- ◎ 과거에 ‘오겠다.’ 고 약속한 자가
새 시대에 올 때는 그 영이 오고,
육으로는 그 시대 사람이 와서 실제로 행합니다.
육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육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현실에는 육 있는 자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서 땅에 보낸 자의 육을 쓰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오고,
실제는 육 있는 선생 쓰고 말씀을 전하여 신부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육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사명과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재림 역시 ‘영’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였습니다.

(왕하 2:11)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왔습니다.

(마 17:1-3)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때 엘리야도, 모세도 육신이 없이 영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육신이 천국에 가서 죽고

영만 다시 온 것이겠습니까.

만일 엘리야 육이 승천했다면

지구 중력권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천국까지는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년 이상을 가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육신으로 150억 광년 이상을 간다면,

육이니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육신이라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벧후 3: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벗어난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그같이 할 수 없으니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풀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 **구약에서 약속한 바,**

메시아보다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말 4:5-6)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 영을 본 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 그제야 세례요한이 엘리야임을 알았습니다.

(마 17:10-13)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요한은 엘리야와 시대도 다르고,

생긴 모양과 형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외쳐 주는 사명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영만 와서 도울 뿐이었습니다.

(눅 1:11-17)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중략…)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을 엘리야를 기다리는 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세례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습니다.

주 앞에 먼저 보낸다 했던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온 것을 모르니,

메시아 예수님이 온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온 것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고, 영이 승천한 고로
다시 올 때는 영밖에 못 옵니다.
땅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려면 육이 있어야 됩니다.
고로 육 있는 자,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심정과 사상으로
세례요한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 세례요한이 엘리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과 선생이 제대로 가르치니,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시대가 다르니, 같은 사명으로 오되 다른 자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봉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이 시대 인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압니다.

(영상 6) 불심판, 구름 비유 등 도표 활용 / 예수님 활동 영상

② 또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혹은 ‘메시아가 온다.’ 고
예언한 말씀이 많습니다.

(사 66: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
하실 것이라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이가 하늘 구름을 타
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같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영의 강림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실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을 가지고 오신다.’ 는 것은
실상 하나님 영이 와서 예수님을 쓰고 불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는 것은
믿고 따르는 자들, 곧 인(人)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며, 베들레헴에서 난다.’ 한 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새 일, 구원역사를
하나님 영과 함께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하사, 예수님을 쓰고 절대 함께 행하셨습니다.

(영상 6 끝)

- 또한, 구약 사람들이 최고로 추종하던 모세가 말하길,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온다.” 하였습니다.

(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찌니라”

실제 이 일이 이뤄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요 5: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모세와 시대도 다르고

생긴 것도,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신약시대 주인인 메시아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모세와 다른 자인데,

어찌 자기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명적으로 보면,

모세는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내었고

예수님은 구약 4000년간 종의 주관권에서 산 자들을

아들로 석방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인 고로,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들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 때 기록해 놓은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 예언을

다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듣고 깨달은 자들은

‘온다고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했습니다.

(영상 7)

③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마 24:29-30)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 고 한 것은

예수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그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붓도 예수님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말씀’ 이 붓이었고, ‘사명’ 이 붓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최고 비밀의 인봉입니다.

(영상 7 끝)

이로 인해

이 시대 무지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예언한 성경을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사탄과 귀신의 이론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망, 흑암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니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있는 자신에 관한 예언을 계속 풀어 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구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5장 ‘신랑으로 온다.’ 등의 신약 예언을

선생도 풀어 주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야 주를 배우고, 선생을 알고 믿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만일 듣고도 아니라 하면 자기가 자기 구원하라고 하고,
믿는 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나 예수에게 물어보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온다는 성구는

시대에 온 자를 두고 한 예언입니다.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육이 안 오고 영만 오셨습니다.

영만 와서는 눈에 안 보이니

주일날 설교도 못 하고, 순회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도 대화나 면담도 못 하고,

아픈 자들에게 기도도 못 해 줍니다.

옛날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신약 때 활동하듯

그렇게 역사를 펴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육신 있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맞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과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명자를 통해 천 년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역사를 펴서 할 일을 다 하시는데,

시대가 다르니 절대 새 시대에 해당되게 다른 방법으로

미련 없이 할 것을 다 하고 오셨습니다.

- 이상세계, 천 년 혼인 잔치 역사 -

◎ 하나님은 때와 연도를 절대 맞춰 하시니,
 때가 오면 1초도 안 넘기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이 건물이 건축되듯 이뤄져 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상세계를 이룬다고 하신 대로 개발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이상세계, 지상 천국을 이루고 남겨
 모두 보게 함으로써 시인하게 하십니다.

◇ 이사야 43장 19-20절에서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 물이 흐르게 하리니,
 시랑과 타조와 사슴과 같은 들짐승들이 모여들듯
 나의 택한 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과거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역사해 오시면서
 그때마다 이상세계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를 따라 만든 곳이 월명동입니다.
 모두 개발하여 이상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타조, 사슴, 양 같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세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사망권에 있던 사람들을
 성약의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여 시대를 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자를 가르쳐, 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알고 좇는 자와 구원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만물들을 이용하시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다 해 오셨습니다.
 천 년의 섭리역사는 갈수록 계속 번창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어도 그 주관권 안에 있는 자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사고, 인식, 관념을 따로 가지고 보아서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악평하고, 해를 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니
 때가 되면 그냥 두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불신하면
 모세 때같이 광야에 살다 고통 속에 죽게도 합니다.
 예수님 때는 불신자들을 그냥 구시대에 남겨 놓고
 자손들까지 수천 년씩 계속 새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고통을 주었듯,
 이 시대도 불신자와 배반자는 그 행한 대로
 구시대와 사망에 처해 고통을 받으면서 수천 년까지 가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좇는 자들만 이상세계에 살게 하시고,
 약속한 천 년 혼인 잔치를 그들과 하십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과 행하셔도
 행하는 자가 그의 행하심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행하신 후에 “행할 일을 다 행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간 후에야
 후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외치게 하십니다.
 당세 때는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고 불신하니,
 나타내지를 않고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도

은밀히만 알고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영상 8)

- ◇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만 알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듯,
그 일을 사명자만 알고 하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모르게 행하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악평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8 끝)

- ◇ 이 시대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것들을
성령과 예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화입니다. 새 시대가 보화입니다.

진리를 부인하면, 시대에 보낸 자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 예수님도 불신한 자로 봅니다.
보화를 아는 자는 입을 다물고 행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시대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모두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 ◇ 땅의 이상세계는
구시대에 약속한 것에 대한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 하여금 축복을 받을 조건을 세우게 한 후에
 새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며
 땅 끝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작은 것부터 행하게 하시다가,
 점점 역사를 키워 가며 행하십니다.
 새 시대 축복을 주고 행해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사랑받고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주인이 되어 행하십니다.
 이를 위해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고, 사랑을 이루는 자이십니다.
 완전하게 시대의 택한 자들을 신부로 삼고 행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육신 일생 사는 동안 각자 행하게 하시고
 정한 천 년 동안 그 후손들과 계속 행하십니다.
 그 영들과 혼들도 같이 행합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입니다.

(영상 9)

정녕코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해가 빛을 잃지 않고 비추듯이,
 달이 뜨고 지듯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영상 9 끝)

- ◇ ‘휴거’가 무엇인지 모두 깨닫고
 시대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한 자들은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는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불신한 악인들과
몰라서 모르는 대로 행한 자들은
그 행한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습니다.

-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안다 -

◎ 항상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시대 구원자를 통해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확실해야, 거기에 해당되게 행하는 답도 확실한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또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에게 행하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도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처지에서, 어떤 물음에 대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답이 이상한 것은

문제, 혹은 질문을 한 자의 말을 다시 이해하고

답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원인에서 결과를 알게 됩니다.

◇ 사람은 한 가지를 하면 그것은 해결되나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하실 때는

한 가지 그 일을 해결하려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람은 행하면 장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행하면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행하면 혼자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맞고 하나가 안 될 때 다투게도 됩니다.
혼자 살면 둘로 인한 문제는 없고 편합니다.
그 대신, 둘로 인하여 얻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한 자와 같이 살면
얻는 것이 많고,
사람과 같이 살 때처럼 신경 쓰이는 일이나
그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안 한 대로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해야 될 자가 있고, 안 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일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뜻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결혼을 안 함이 더 좋습니다.

절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할 자만 사랑하고 살면
영원한 것만 위해 사니 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선생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 되어 사니 손해 간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함께하고 도우셨습니다.

어느 때는 내 책임 분담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다고 약속한 자가 오면,

그는 그를 보내신 자를 섬기고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삽니다.

◇ 하나님의 좋은 인식이 들어가려면

자기 인식을 100%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이 들어갑니다.

절대신의 인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인식으로는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성자,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